

## 업·계·소·식

### 럭키금성 그룹 임원인사

럭키금성그룹은 12월 22일 이현조 금성사 사장을 대표이사 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총 171명에 대한 임원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 이정성 (주)럭키 부사장과 차동세 경제연구소장 등 부사장급 7명을 사장으로 승진 발령했다. 그룹내에서 본회 회원사 임원인사는 다음과 같다.

#### <부회장 승진>

(주)금성사 이현조

금성산전(주) 광송희  
금성산전(주) 이용우  
럭키금성상사(주) 이정훈

금성일렉트론(주) 윤정세  
럭키금성상사(주) 진용구  
럭키금성상사(주) 이상모  
럭키금성상사(주) 김승문  
럭키금성상사(주) 이승일

#### <부사장 승진>

금성정보통신(주) 조정주  
금성통신(주) 오세희

<상무급 전보>  
럭키금성상사(주) 구자준

#### <부사장 전보>

럭키금성상사(주) 손기락

<이사 승진>  
금성전선(주) 강대옥  
금성전선(주) 이광식  
금성전선(주) 박선규

#### <이사 전보>

금성계전(주) 김수철  
금성계전(주) 남세현  
금성기전(주) 이강용

#### <전무 승진>

(주)금성사 김중기  
(주)금성사 이은준  
(주)금성사 김선동  
금성정밀(주) 박영수  
금성산전(주) 박충현  
금성산전(주) 구정길  
금성일렉트론(주) 김홍식  
금성일렉트론(주) 정병철

(주)금성사 강무용  
(주)금성사 도진호  
(주)금성사 김일성  
(주)금성사 유근상  
(주)금성사 서기홍  
(주)금성사 유만선  
(주)금성사 전종택  
(주)금성사 김철호  
(주)금성사 이춘래  
(주)금성사 신광수

#### <이사대우 승진>

금성전선(주) 김영식  
(주)금성사 유성환  
(주)금성사 김달용  
(주)금성사 권혁철  
(주)금성사 서상목  
금성알프스(주) 김백권  
금성정보통신(주) 강창형  
금성산전(주) 임허일  
금성산전(주) 한용택  
금성산전(주) 양 혼  
금성일렉트론(주) 배영균  
금성일렉트론(주) 최재창  
금성일렉트론(주) 김양규  
금성일렉트론(주) 전영준  
럭키금성상사(주) 정진권  
럭키금성상사(주) 금병주  
럭키금성상사(주) 이재섭

#### <전무 전보>

금성기전(주) 구자욱

금성알프스(주) 김성채  
금성소프트웨어(주) 송규호  
금성정보통신(주) 남영우  
금성정보통신(주) 하우영  
금성정보통신(주) 유근영  
금성통신(주) 홍 경  
금성정밀(주) 이경기  
금성산전(주) 임규영  
금성계전(주) 박상돈  
금성하니웰(주) 주효원  
금성일렉트론(주) 오문용

#### <상무 승진>

금성전선(주) 이수홍  
금성전선(주) 전병열  
(주)금성사 김상수  
(주)금성사 하건영  
(주)금성사 임세경  
(주)금성사 허정수  
(주)금성사 최수택  
금성정보통신(주) 임영민

#### <연구위원(이사급)>

금성일렉트론(주) 김춘경

## 업·계·소·식

〈연구위원(이사대우급)〉

(주) 금 성 사 김두호

(주) 금 성 사 이광춘

금 성 정보 통신(주) 이정률

금 성 통 신(주) 노희영

### 삼성그룹 임원 247명 승진인사

삼성그룹은 대우이상 부사장까지 모두 247명에 이르는 최대규모의 승진인사와 36명의 전보인사 등 모두 283명의 인사를 발표했다.

인사내용을 보면 부사장 승진 15명, 전무 승진 24명, 상무 승진 43명, 이사 승진 64명, 대우이사 승진 101명과 관계사전출 36명 등 모두 283명으로 창업이후 최대규모이다.

본회 회원사의 임원인사는 다음과 같다.

#### 〈부사장 승진〉

삼 성 물 산(주) 김유진  
삼 성 물 산(주) 이종구  
삼 성 전 자(주) 장주일  
삼 성 전 자(주) 홍종만  
삼 성 전 자(주) 구본국  
삼 성 전 자(주) 이해민  
삼 성 향 공 산 업(주) 유무성

삼 성 물 산(주) 이규태  
삼 성 전 자(주) 이용복  
삼 성 전 자(주) 김영운  
삼 성 전 자(주) 손영호  
삼 성 전 자(주) 황선도  
삼 성 전 자(주) 김성권  
삼 성 전 자(주) 윤극노  
삼 성 전 자(주) 오정환  
삼 성 전 자(주) 오희근  
삼 성 전 자(주) 유승화

삼 성 물 산(주) 김 인  
삼 성 전 자(주) 김영조  
삼 성 전 자(주) 오동진  
삼 성 전 자(주) 최도석  
삼 성 전 자(주) 강인순  
삼 성 전 자(주) 정호균  
삼 성 전 자(주) 권오기  
삼 성 전 자(주) 이상완  
삼 성 전 자(주) 박종성  
삼 성 전 자(주) 홍우현

#### 〈전무 승진〉

삼 성 물 산(주) 원대윤  
삼 성 물 산(주) 정방언  
삼 성 물 산(주) 박철원  
삼 성 전 자(주) 김창헌  
삼 성 전 자(주) 김 순  
삼 성 전 자(주) 안광수  
삼 성 전 자(주) 양원석  
삼 성 전 자(주) 최재준  
삼 성 전 기(주) 윤석영  
삼 성 코 닝(주) 유경한  
삼 성 향 공 산 업(주) 김봉기  
삼 성 향 공 산 업(주) 최일영

삼 성 전 자(주) 권녕하  
삼 성 전 자(주) 김홍인  
삼 성 전 자(주) 이승항  
삼 성 전 관(주) 정호상  
삼 성 전 관(주) 김영환  
삼 성 전 관(주) 윤경수  
삼 성 전 관(주) 황규호  
삼 성 전 기(주) 박진서  
삼 성 전 기(주) 박완혁

삼 성 전 자(주) 이순동  
삼 성 전 자(주) 최진배  
삼 성 전 관(주) 장병태  
삼 성 전 관(주) 이증현  
삼 성 전 관(주) 김홍식  
삼 성 전 기(주) 권영무  
삼 성 코 닝(주) 신평순  
삼 성 코 닝(주) 홍석준  
삼 성 코 닝(주) 이상배  
삼 성 향 공 산 업(주) 권영욱

#### 〈이사 승진〉

#### 〈상무 승진〉

삼 성 물 산(주) 이현노  
삼 성 물 산(주) 김동호  
삼 성 물 산(주) 김진규

삼 성 물 산(주) 김승현  
삼 성 물 산(주) 나진수  
삼 성 물 산(주) 유병문  
삼 성 물 산(주) 신현정  
삼 성 물 산(주) 신동성  
삼 성 물 산(주) 조경한

#### 〈대우이사 승진〉

삼 성 물 산(주) 한창기  
삼 성 물 산(주) 이찬경  
삼 성 물 산(주) 김홍식

## 입·계·소·식

삼 성 물 산(주)	서상희	삼 성 전 자(주)	박희종	삼 성 전 자(주)	최지성
삼 성 물 산(주)	홍성혁	삼 성 전 자(주)	김정희	삼 성 전 자(주)	성재삼
삼 성 물 산(주)	이석구	삼 성 전 자(주)	엄기수	삼 성 전 자(주)	장영덕
삼 성 물 산(주)	최용태	삼 성 전 자(주)	박종근	삼 성 전 자(주)	김현덕
삼 성 물 산(주)	백학수	삼 성 전 자(주)	조규근	삼 성 전 관(주)	윤영기
삼 성 물 산(주)	김수근	삼 성 전 자(주)	김태학	삼 성 전 관(주)	나철일
삼 성 물 산(주)	신규식	삼 성 전 자(주)	강대항	삼 성 전 관(주)	최대옥
삼 성 물 산(주)	이광식	삼 성 전 자(주)	김용민	삼 성 전 기(주)	윤용영
삼 성 물 산(주)	이재청	삼 성 전 자(주)	이기홍	삼 성 전 기(주)	황열원
삼 성 물 산(주)	황 백	삼 성 전 자(주)	이지섭	삼 성 코 닝(주)	박재이
삼 성 물 산(주)	홍석신	삼 성 전 자(주)	전병태	삼 성 향 공 산 업(주)	한창근
삼 성 전 자(주)	권순영	삼 성 전 자(주)	박덕홍	삼 성 향 공 산 업(주)	이해성
삼 성 전 자(주)	고인수	삼 성 전 자(주)	성재생	삼 성 향 공 산 업(주)	조규완
삼 성 전 자(주)	이현봉	삼 성 전 자(주)	김상기	삼 성 향 공 산 업(주)	서영록
삼 성 전 자(주)	이승남				

한편 삼성전자는 기존조직 가운데 유사조직을 통폐합. 8개의 대 본부제로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가전부문을 영상, 음향, 비디오사업을 총괄하는 AV본부와 냉열기, 리빙, 생활용품을 관리하는 가전본부로 이원화했으며 컴퓨터부문과 정보통신부문은 정보컴퓨터본부로 통합했다.

또한 통신기기와 OS, 무선 및 특수사업부는 통신시스템본부로 통합하고 반도체부문은 메모리와 비메모리로 나누어 메모리본부와 마이크로본부를 설치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문별 본부장은 다음과 같다.

AV본부장 구본국 부사장  
 가전본부장 이해민 부사장  
 정보컴퓨터 본부장 홍종만 부사장  
 통신시스템 본부장 장주일 부사장  
 메모리 본부장 이윤우 부사장

마이크로 본부장 이형도 부사장  
 수원공장장 문병대 전무  
 국내영업본부장 손명섭 전무  
 해외본부장 노근식 전무  
 전략기획실장 김현곤 전무

경영관리실장겸 인력개발실장  
 송용로 전무  
 구매전략실장 김창현 전무  
 홍보실장 김 훈 전무

### 현대그룹 대규모 인사

이번 현대그룹 인사는 창업이후 최대규모이면서 '93년을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는 경영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조직활성화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계열사중 본회 회원사 임원 인사는 다음과 같다.

## 업·계·소·식

### 〈부사장 승진〉

현대 전자 산업 (주) 오계환  
 현대 종합 상사 (주) 정정일

### 〈전무 승진〉

현대 전자 산업 (주) 이수남  
 현대 전자 산업 (주) 김영환  
 현대 종합 상사 (주) 이세환  
 현대 종합 상사 (주) 김고중  
 현대 종합 상사 (주) 서오석

### 〈상무 승진〉

현대 전자 산업 (주) 변강원  
 현대 전자 산업 (주) 전동수  
 현대 전자 산업 (주) 전인백  
 현대 종합 상사 (주) 김동정  
 현대 종합 상사 (주) 김덕성

### 〈이사 승진〉

현대 전자 산업 (주) 황기수  
 현대 전자 산업 (주) 연규현  
 현대 전자 산업 (주) 조영선  
 현대 전자 산업 (주) 이봉환  
 현대 전자 산업 (주) 김승일  
 현대 전자 산업 (주) 윤만철  
 현대 전자 산업 (주) 한창석  
 현대 전자 산업 (주) 강석진  
 현대 전자 산업 (주) 윤만준  
 현대 종합 상사 (주) 양한석  
 현대 종합 상사 (주) 이강대  
 현대 종합 상사 (주) 안승길  
 현대 종합 상사 (주) 김우권  
 현대 종합 상사 (주) 이승오  
 현대 종합 상사 (주) 박종용

### 〈이사대우 승진〉

현대 전자 산업 (주) 이용범  
 현대 전자 산업 (주) 문영기  
 현대 전자 산업 (주) 송해청  
 현대 전자 산업 (주) 이근우  
 현대 전자 산업 (주) 유상국  
 현대 전자 산업 (주) 윤희구  
 현대 전자 산업 (주) 조귀정  
 현대 전자 산업 (주) 이대훈  
 현대 전자 산업 (주) 안성진  
 현대 전자 산업 (주) 김병훈  
 현대 전자 산업 (주) 이영희  
 현대 종합 상사 (주) 정동학  
 현대 종합 상사 (주) 김상명  
 현대 종합 상사 (주) 박근배

## 시리아에

### TV 수출

#### (주) 금성사

(주) 금성사

금성사(대표 이현조)가 시리아 국영가전업체인 시로닉스사에 컬러TV를 대량 수출한다.

금성사는 신광수이사, 지아드 자비비 시로닉스 사장과 이승일 럭키금성상사 이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 시로닉스사에서 2,300만 달러(12만5천대)에 이르는 컬러TV 부품 및 생산장비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금성사는 럭키금성상사와 공동으로 시로닉스의 컬러TV 국제입찰에 참가, 품질 및 디자인분야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아 일본의 샤프 독일의 그룬디히 등 해외유수가전업체를 물리치고 수주에 성공했다.

## 카드/주화 겸용

### 셀룰라 공중전화기

#### 국내 최초 개발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카드/주화겸용의 셀룰라공중전화기를 순수자재기술로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금성통신이 첫 국산화한 셀룰라공중전화기는 버스, 택시, 열차, 선박 등 이동하는 장소나, 일반 유선전화의 사용이 곤란한 단체행사장, 도서 산간벽지 등의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전화망(Cellular Network)을 이용하여 시내외 및 국제 공중전화를 할 수 있는 편리한 제품이다.

금성통신은 30년간 공중전화기 개발과 국내 최초의 카폰 및 휴대전화기를 개발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카드/주화겸용의 셀룰라공중전

## 업·계·소·식



화기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번 제품 개발을 위해 지난 1년간 10명의 연구원이 10억원의 개발비를 투입하였고 내년 상반기중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금성통신은 '91년말에 보급형 휴대전화기 GSP-100 개발에 이어 셀룰라공중전화기를 순수 자체기술로 개발하여 국내 이동통신 단말기의 기술력 제고 및 이동통신서비스의 대중화에 기여했으며, 국산 셀룰라공중전화기의 공급에 의한 연간 1,000만불의 수입대체효과 및 향후에 해외수출을 적극 추진할 것으로 금성통신은 밝혔다.

### 투라인 유선전화기 출시 금성통신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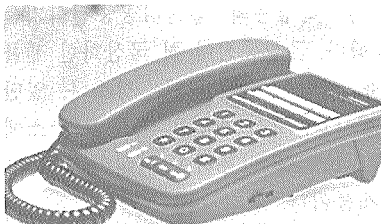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국선2회선을 수용하여 소규모 사무실에서 키폰대용으로 사용가능한 다기능의 투라인(Two Line) 유선전화기(모델명 : GS-871)을 개발하여 출시한다. 소규모 사무실에서 본 제품을 여러대 연결, 설치할 경우 회의 통화 등의 기본적인 전화서비스를 활용 할 수 있어 소형키폰에 비해 경제적이면서 키폰형태의 디자인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금번 금성통신이 개발한 투라인전화기 GS-871의 주요기능은

1. 3자회의 통화 및 회의중 표시기능,
2. 국선 1, 2 회선에 대한 사용중 표시기능,
3. 송수화기를 들지않고 전화걸 수 있는 온후크다이얼링 기능,
4. 온후크다이얼시 스피커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온후크 음량조절스위치,
5. 전화번호 문의하는 114같은 곳과 통화중 상대방이 가르쳐준 전화번호를 별도로 메모할 필요없이 전화기에 입력하고 통화 끝난 후 메모 재다이얼버튼을 누르면 방금 입력된 전화번호가 다이얼 되는 메모 재다이얼기능,
6. 자주 거는 전화번호 8개를 기억시켜 간편하게 전화걸 수 있는 워터치 단축다이얼기능,
7. 통화중에 상대방을 잠시 기다리게 할 때 송수화기를 전화기에 올려 놓아도 전화는 끊어지지 않으며 스피커를 통하여 음악이 흘러나와 보류중임을 알 수 있는 보류음악송출/자동해제기능 등이 있어 편리하게 키폰스타일의 통화를 할 수 있다.

기타 기능으로는 전자식/기계식 겸용, 플래시기능, 재다이얼기능, 착신음량조절기능, 톤전환기능 등이 있다.

한편, 국내 일반 유/무선전화기의 '92년도 총수요는 560만대/2,5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에 아직은 유선전화기가 스카프



금성통신이 개발한 키폰대용의 다기능,

투라인(TWO LINE) 유선전화기(모델명:GS-871)

로 60%, 금액적으로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는 정채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베트남에 전화기  
20만대 수출  
금성통신 (주)**

금성통신(대표 백중영)은 전화기 20만대 수출계약을 베트남 우전 총국(Directorate General of Posts and Telecommunications : DGPT)과 최근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번 수출계약은 지난 8월에 전화기 2만대 수출계약에 이은 것으로써 향후 3년동안 베트남 현지 조립생산 사업형태로 체결한 것이다.

또한 전화기 기술자료 제공, 기술인력 훈련 등 전화기 관련 기술 이전을 통해 베트남의 통신설비 현대화 계획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향후에 키폰시스템, 무선전화기, 공중전화기 등의 사업협력을 계속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베트남은 '92년말 현재 인구 약 7천만명에 전화 16만회선을 보유하고 있으며, '95년까지 60만회선을 증설하는 통신서비스 증대계획을 갖고 있어 이중 전화기 절반 물량을 금성통신에서 구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로써 금성은 전화교환기와 전화기 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게 되어 향후 베트남통신설비 현대화계획 추진의 든든한 협력관계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며 그 전망을 밝게 해주고 있다. 최근 베트남은 한국과의 국교수교를 계기로 동남아시아에서 잠재력이 가장 큰 미개척 시장으로 알려져 국내 업계에 관심과 베트남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 동안 국내 통신기기 베트남 통신망이 금성제품으로 보급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FC 대체냉장고  
첫 상용화  
대우전자 (주)**

대우전자(대표 배순훈)가 CFC(프레온가스) 대체냉장고를 개발,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판에 들어간다.

이 회사가 '89년부터 60억원의 개발비와 30명의 인력을 투입, 이번에 양산에 성공한 이 대체냉장고는 오존층파괴의 주물질인 CFC 계열대신 HFC-134a를 냉매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미 신뢰성 테스트도 끝마쳤다.

3백50ℓ급인 이 대체냉장고(FRB-35CH)는 또 발포제로 물을 50% 이상 사용, CFC-11의 사용량을 대폭 줄였으며 세정제로도 CFC-113대신 대기환경에 유해한 염소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알칼리수계세정제를 사용했다.

대우전자는 우선 주력용량인 3백50ℓ급에 CFC대체물질을 사용한 데 이어 94년말까지 전기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CFC대체냉장고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일본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아직 시제품개발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제품을 양산한 것은 대우측이 처음이다.

한국통신 EDS사업에 「타이컴」 도입  
대우통신 (주)

대우통신(대표 박성규)의 국산중형컴퓨터 타이컴기종인 「DTC-9000」이 한국통신의 전자전화번호부(EDS: Electronic Directory Service) 사업 개발용 주전산기로 최종 결정됐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통신이 EDS사업용 주전산기 도입을 위해 실시한 공개경쟁입찰에서 대우통신, 금성사, 삼성전자, 현대전자 등 타이컴생산 4개사가 기술규격 및 경제성 등을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인 끝에 이같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결정으로 대우통신은 한국통신으로부터 타이컴 상용화제품에 대해 개발 4개사중 상대적인 제품우위를 인정받게 됨으로써 향후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제품의 판매경쟁에서 일단 유리한 위치를 선점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국통신의 전자전화번호부서비스는 일반전화 가입자들이 개인용 컴퓨터(PC)를 포함한 정보통신단말기로 공중전화망 및 패킷교환망을 통하여 가장 최신자료로 수시 수정·보완되는 인명별, 업종별 전화번호부 및 이와 관련된 광고정보를 알기쉬운 그림화면으로 검색, 일상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첨단 정보서비스 분야이다.

한국통신은 이번 시스템 도입을 바탕으로 기존 전화망 및 패킷교환망을 통하여 공공정보 이용의 대중화 실현과 아울러 이용자, 통신망, 정보원의 균형있는 발전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사업은 특히 전화번호 안내인력을 절감하고 정보통신사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PC 1천만대 보급의 기반조성과 발맞추어 추진되는 정보산업 육성방안이기도 하다.

전자전화번호부서비스는 프랑스, 캐나다 등 일부 전자통신분야 선진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최첨단 정보통신서비스 분야로서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에서는 최초로 실시하는 것인데, 대우통신은 금년 6월 이 서비스의 실용화를 목표로 현재 한국통신 연구개발단과 공동으로 소프트웨어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일본 DNS사와 반도체장비업체  
합작 설립  
삼성전자 (주)

삼성전자가 일본의 반도체장비 전문생산업체인 다이닛본스크린(DNS)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장비업체를 설립한다.

삼성전자는 일본 DNS사와 합작으로 국내에 가칭 「한국DNS」란 반도체장비 생산업체를 설립키로 하고 일본측과 마무리협상을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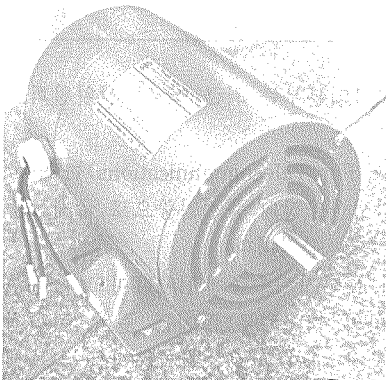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월중 설립될 한국DNS는 삼성이 지분의 절반 이상을 갖고 트랙 장비와 워크테이션 등 유틸리티 관련장비를 생산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차세대반도체 사업의 성패가 첨단장비의 조기확보여부에 달려있다는 판단아래 이 회사의 설립에 이어 CVD(화학적기상도포)를 비롯한 주요장비생산업체와도 「전략적 제휴」를 맺을 계획인데 대부분 지분참여가 아닌 적정수요를 보장함으로써 외국장비업체와의 국내업체가 합작사를 설립토록 측면지원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전동기 개발**  
삼화기연 (주)

이제 전동기에도 에너지 절약과 고효율 시대가 열렸다. 1, 2차 유류 파동을 통하여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은 직접 피부로 느껴보았으므로 앞으로 다가올 제3차 고유가 시대를 대비하여 에너지 소비 비율이 높은 모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대체한다면 생산성 원가 절감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직도 모터를 태우다니!”란 말만 들어도 생각나는 EOCR(Electronic Over Currnt Relay)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발하여 수용가 들로부터 대단한 호평을 받은바 있는 동사에서, 또다시 단상으로는 최초로 에너지 절약형 진동기 <1HP부터 5HP까지>를 개발하여 신년도 부터 본격 양산에 들어갈 계획이다. 세계 특허품인 EMS <자체 개발품인 마크없는 전자 릴레이>와 특수 콘덴서를 사용함으로써 효율을 기존보다 10~20%를 향상시키고, 전부하 전류를 20~40%, Down시킴으로서 대·외 경쟁의 여지가 없다. 특히 원심 S/W 대신 무접점 전자 릴레이를 사용함으로써 아크가 전혀 없으므로 수명이 연장되고, 단상 모터의 취약점인 기동 토크를 새로운 권선법으로 개발함으로써 기동특성이 삼상모터에 근접한다. 삼상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 가정에서 부터 대형 공장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국내는 물론 세계 시장에서도 획기적인 상품으로 호평을 받을 것으로 확신한다.



**한글판 일러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개발**  
(주) 어플라이드 엔지니어링

한글을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일러스트레이션 소프트웨어 Arts & Letters가 (주)어플라이드 엔지니어링 부설연구소에 의해 개발되었다.

(주)어플라이드 엔지니어링 대표(문병성)에 따르면 1992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개발비 6천만원을 투입 개발한 이 소프트웨어는 현재 세계각국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는 미국 Computer Support사의



## 업·계·소·식

영문판 Arts & Letters에 아웃라인 한글서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MS-Windows상에서 실행되는 PC용 버전을 공동개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한글판 Arts & Letters는 한글윈도우 3.0과 영문윈도우 3.1에서 수행되며, 특히 한글판 Arts & Letters는 그동안 난제로 여겨졌던 한글자동자간조절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헤드라인 문자와 같이 크기가 큰문자를 지정해 문장을 만들 경우 기존방식처럼 컴퓨터를 이용하면서도 수작업에 의해 일일이 다듬어야 했던 한글자간 조절의 불편함을 해소하게 되었다.

한글자간조절에 관한 이론은 그동안 문자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들도 몇몇을 제외하고는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이 없어 컴퓨터에 적용시킬 수 있는 이론을 연구하느라 오랜기간과 노력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한글판 Arts & Letters는 현재 7개의 서체가 공급되며, 서체의 종류로는 견출명조, 견출고딕, 굵은굴림체, 궁서체, 그리고 창작서체인 BK서체 2종, 바울체 1종과 영문서체 90종이 공급된다. 제공되는 7개의 한글서체는 사인류 제작업체의 커틴플로터까지도 고려하여 1,000포인트(35mm)이상까지 확대하여도 매우 정교하게 출력되도록 하였다.

### 영국 품질보증마크

#### 「BABT」 획득

(주) 인켈

인켈(대표 최석한)의 정보통신사업본부는 최근 영국통신위원회로부터 「BABT」마크를 획득했다.

BABT(British Approvals Board For Telecommunications)는 영국통신위원회가 부여하는 통신기기생산공장의 품질인증으로 국제표준화 기구의 ISO 9000시리즈와 비슷한 성격이다.

인켈은 앞으로 EC지역에 대한 통신기기수출에 BABT마크가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지난해부터 이를 준비, 이번엔 서울 도봉구 방학동소재 제2공장에 대한 공장품질인증서를 취득했다.

이 회사는 현재 사설교환기(PABX) 전화기 등을 영국의 셔록사 및 알카텔비즈니스 시스템사에 연간 600만달러어치가량 OEM 수출하고 있다.

인켈도 이 마크를 획득함으로써 EC지역에서의 판매활성화는 물론 미주시장에서도 수출창구를 더욱 넓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ISO 9002」 획득  
오리온전기 (주)

오리온전기(대표 석진철)가 컬러 및 흑백브라운관 모니터 등 3개 품목을 대상으로 ISO 9002 규격을 획득했다.

오리온전기는 영국의 국제품질보증 인증기관인 로이드(LRQA)사로부터 자사가 생산하고 있는 3개품목에 대해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품질보증규격인 ISO 9000품질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ISO 9000품질시스템은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에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제작 검사 시험 및 설치에 이르기까지 품질보증상태를 공인된 제3의 인증기관이 심사, 그 회사의 품질보증 수준을 국제적으로 공인해주는 제도이다.

오리온전기는 지난 2월 ISO 9000 규격획득을 위한 합리화 추진팀을 구성, 본격적인 획득작업에 나선 결과 10개월만에 인증을 받게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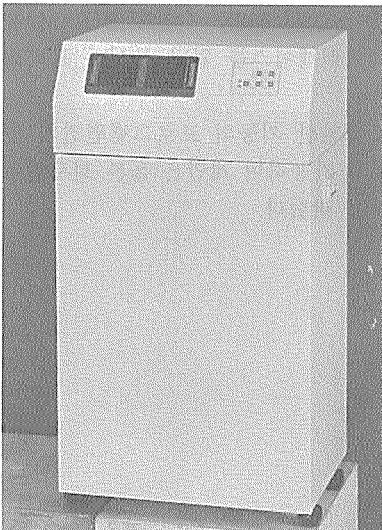
오리온전기는 이번 규격 획득으로 품질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이들 품목의 대외경쟁력도 높일 수 있게 돼 수출증대까지 기대하고 있다.

Water Catch Type  
진기발생기 개발  
정일건설 (주)

최근 실내의 공기오염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오염을 방지하여 실내 환경을 쾌적하고 안전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건강보호와 증진에 효과적인 공기정화기가 새로이 개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고청정을 요하는 반도체공장, 병원의 수술실, 의약품 제조공장, 식품제조공장 및 관련 연구소, 실험실 등의 클린룸 설비를 계속해 오던 정일건설(주)가 축적된 클린룸기술과 일본 이즈미 연구소의 기술제휴로 신기술인 Water Catch Type의 음이온발생기를 개발, 특허출원을 하고 클린룸 시스템과 함께 콤팩트한 진기발생기 제작, 공급에 들어갔다.

정일에서 개발한 Water Catch Type진기발생기는 종래의 필터식 공기청정기와는 전혀다른 방식으로 0.1미크론 이하의 초미세 물방울(미스트)로 공기중의 티끌, 먼지, 세균 등의 제거는 물론 악취나 유독가스까지도 제거하는 성능을 지닌 첨단기술을 응용한 제품으로 인체에 해로운 오존발생이 전혀 없으며 가습이 따로 필요없는 것이 특징이다.



### LBP 사업

#### 대폭 강화

코리아제록스 (주)

코리아제록스(대표 문대원)가 레이저빔프린터(LBP) 사업을 대폭 강화한다.

이 회사는 최근 복사기, 팩시밀리 등의 수요가 정체된 대신 레이저빔프린터 등 출력기기 시장이 활기를 띠에 따라 이 제품을 금년도 중점육성품목으로 선정하고 생산모델을 크게 늘리고 있다.

올해 행정전산망용 「α800」 등 3개모델로 약 7,700대의 판매실적을 올린 이 회사는 내년초 3개모델을 추가로 내놓고 9,500대 이상의 판매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LBP부문의 매출은 올해 110억원으로 작년보다 15%가량 늘어난데 이어 내년에는 올보다 45% 이상 신장된 160억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회사는 국내에서 삼성전자 금성사와 함께 수입선 다변화품목인 LBP엔진을 자체생산하고 있어 여타 OA기업체에 비해 이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한글 DB관리

#### S/W 개발

현대전자산업 (주)

현대전자는 개인정보관리와 업무용 데이터베이스 작성, 응용소프트웨어 개발에 사용되는 한글 데이터베이스 관리용 소프트웨어를 개발, 시판할 계획이다.

이 제품(슈퍼파일 I)은 메뉴방식과 프로그램방식을 동시에 지원, 숙련도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며 최대 100개의 파일 또는 10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동시에 가동시킬 수 있다.

또 한글의 깨짐을 방지하고 필드명이나 변수 등을 한글과 한자로 사용할 수 있다.

이 소프트웨어의 사용환경은 DOS3.0과 512K 이상의 램(RAM)을 필요로 하며 기능면에서 기존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문서나 로터스 1-2-3 등으로 변환할 수 있다.

회사측은 이 제품의 특징으로 다양한 기능의 프로그램편집기 및 함수를 내장, 업무의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며 개인은 물론 회사업무 용으로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